

신세대 관련 지구임원들과 로타랙트 임원들과의 뜻깊은 만찬

서창우 3지역대표 스폰서로 박상진 신세대위원장, 김민태 로타랙트위원장과 로타랙트 지구임원 7명 만찬 및 로타랙트의 향후 발전방향 논의

로타랙트 지구임원 7명은 지난 12월 2일 토요일 명동 단타이핑에서 서창우 3지역 지역대표님, 박상진 신세대위원장님, 김민태 로타랙트위원장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날은 서창우 지역대표님 주최로 지구임원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타랙트가 향후 로타리클럽 회원으로 조속히 발전해 갈 수 있을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로타리 회원들과 로타랙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즉 기회가 많아야 로타랙트가 향후 로타리클럽 회원으로 더 빨리 뻗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깊이 새길 만한 말씀들 잘 듣고 왔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3650지구 로타랙터들이 향후 로타리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봉사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로타랙트 지구대표 김재정(송실남산RAC)

‘제1회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 준비 위한 사전답사무주 태권도원에서 실시 인터랙트 지도교사 및 로타랙트 지구대표 참가, 1월 29일~31일 개최 예정



오는 1월 29일(월)~31일(수)까지 2박3일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1회 3650지구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 준비 위한 사전답사가 지난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전북 무주 태권도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사전답사에는 차상우 인터랙트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과 장만석 건대 부교 지도교사, 김재정 로타랙트 지구대표, 김정호 사무국 직원 등이 참가했습니다. 답사단 일행은 개최 유력 예정지인 무주 태권도원의 각종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 관계자와의 회의 등을 통해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 행사는 금년도 인터랙트 지구대회를 겸하여 실시되며, 지난 9월 26일 박상진 신세대위원장, 경희수 인터랙트위원장, 김재철 사무부총장 및 인터랙트 지도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인터랙트위원회 회의와 지난 10월 로타랙트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개최를 확정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 인터랙트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차상우



한성(마포고) 인터랙트클럽, 사랑의 꾸러미함 물품 수집 봉사 실시, 헌혈봉사 행사 및 교내 축제 조명담당 봉사도 펼쳐



한성(마포고) 인터랙트클럽(후원 한성RC) 회원들은 지난 11월 17일(금) 사랑의 꾸러미함을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의 꾸러미함 행사는, 마포고 인터랙트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이 연합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치약, 비누, 치솔, 삼푸...) 중 여유분을 가져와서 사랑의 꾸러미함 속에 모으면, 인터랙트 학생들이 복지관으로 배달합니다. 복지관에서 인터랙트 학생들이 여러 기관에서 모은 생필품을 분류하여 복지관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배달합니다. 홍보에서 분류 및 전달을 마포고 인터랙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7일(월)에는 본 인터랙트클럽 주도로 마포고에서 헌혈행사가 있었습니다. 인터랙트에서 적십자에 연락하여 매년 11월 하순에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 2학년 학생 중 총 236명이 헌혈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8일(화) 삼계제(동아리 발표회)에 참가하여 인터랙트는 강당에서 공연하는 모든 팀을 위하여 조명을 담당하였습니다. 조명 연습할 때, 한성로타리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인터랙트 학생들에게 식사 및 피자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한성(마포고) 인터랙트클럽 지도교사 진형필



숙명로타랙트클럽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일일호프 개최

숙명 로타랙트클럽(후원 서울예장RC)의 11월은 대내 행사와 대외 행사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숙명 로타랙트 모든 친구들이 '미리 메리크리스마스'라는 컨셉에 걸맞게 꽃보다 아름다운 산타와 루돌프가 되어, 11월 3일 금요일에 신촌의 쇼다운에서 일일호프를 개최하였습니다.

20기는 블랙과 딥그린, 21기는 블랙과 레드 색깔로 옷을 맞추었고, 쇼다운을 각종 크리스마스 장식들과 손수 만든 데코를 이용하여 아기자기하게 꾸몄습니다.

이외에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춤 공연, 뽑기와 게임 등을 긴장이 무색하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고, 추운 날씨에도 숙명 로타랙트 모두 웃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각자의 맡은 바를 충실히 해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타 클럽의 많은 내빈분들이 자리해주셨고,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서울예장 로타리클럽에서도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글. 숙명로타랙트클럽 회장 서효림



지구로타랙트 연합 8개 클럽 104명, 11월 1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SBS 희망 TV 기부방방 나눔 봉사참가

3650지구로타랙트 연합 8개 클럽 104명(고려대, 덕성여대, 서울남산, 숭실남산, 연세대, 외대, 이화여대, 한양캠퍼스)의 회원들은 지난 11월 1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SBS 서울방송이 함께 주최한 '희망TV 나눔 기부방방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에서 진행된 기부방방 봉사는 참가자들이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트램펄린에서 뛰어 떨어지는 동전을 기부하는 재미있는 기부놀이 이벤트였습니다.

저희로타랙트 인원들은 방송 촬영에 따른 현장 보조 역할, 행사장 내에서 안전 지도, 행사 안내 등을주로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은 바람이 매섭게 불어, 매우 추웠음에도 불구하고로타랙트 회원들과 참가한 아이들은 결코 웃음을 잃지 않고 맑은 바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임했습니다. 104명의로타랙터,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한 이 행사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곳곳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전파되길 기원합니다.



글. 고려대 로타랙트클럽 회장 김병섭

서울로타랙트클럽, 11월 주회로 와인특강 행사

지구 유일의 직장인, 대학생생 로타랙트클럽, 37명 회원들로 매달 셋째주 정기모임 가져



서울로타랙트클럽(후원 서울삼청RC)은 서울에 연고가 있는 직장인, 대학생생 클럽으로 3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사를 모셔 강연을 듣고 회원간 본인 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주예찬 소믈리에를 초청하여 와인특강을 진행 하였으며 와인의 역사와 국가별 와인 종류 등을 소개받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끝에는 종류별 와인을 시음하며 특정 와인에서는 어떤 맛이 나고 향이 나는지 체크하며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클럽에서는 앞으로 와인관련 연사님을 주기적으로 초청하여 와인에 대해 배우고 클럽 내에 와인 동호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클럽에서는 다른 클럽에 회원 분들도 게스트로 오시는 것을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가입 및 참가 문의 : seoulrac@gmail.com

글. 서울로타랙트클럽 총무 홍대기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물푸레 리틀랙트 합창단, 광진나루아트 대강당서 정기연주회 개최



지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가을의 향기가 한층 짙어지는 가운데 광진 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 대강당에서는 물푸레리틀랙트 합창단(서울문화로타리 후원)의 정기 연주회가 600여명의 관객이 꽉 찬 가운데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개그맨 차승환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연주는 특별히 '어린이 안전' 을 주제로 하여 1부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연주반, 교육반, 새싹반, 소년 중창단, 물푸레 여성합창단 등 총 연주자 226명이 출연하여 다양한 연주를 선보였으며 2부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으로 광진경찰서 8명의 경찰관들이 출연하여 어린이 안전 동요를 함께 연주 하므로써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3부 아름다운 세상으로 진행되면서 극장 안의 조명이 암전된 가운데 출연자 전원이 초를 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불러 관객과 함께 모두가 가슴 벅찬 감동을 나누었다.

또 중간에 분위기를 돋기 위하여 바리톤 안갑성 씨의 "YOU RAISE ME UP" 과 "지금 이 순간" 두곡은 그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 주었다.

경희수 단장(서울문화RC, 인터랙트 위원장)은 일반적인 합창공연의 아름다움 과 또 동요를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것이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 잘 전달 된 것 같다고 좋아 하였다.

이날 참석한 이종원 전 총재는 "예전 보다 훨씬 규모도 커졌고 음악적인 수준 도 높아진 것 같아 많이 노력한 흔적이 눈에 띈다"고 칭찬하였다.

미래의 훌륭한 로타리안으로 자랄 물푸레 리틀랙트 합창단의 더욱 눈부신 발전을 기대 해 본다.

